



불교 이데서 쫓다

박경숙 청소년교회연합회 간사

“自他不二정신 나의 좌우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나에게 생긴 큰 변화는 행동하기전에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불교를 믿기전에는 단순히 고등학교 시절 윤리시간에 배웠던 4자 성어로만 여겼는데



란 행사를 열고 있다. 청소년들이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는 또래의 장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하루동안 수업을 가르치고 친구가 돼주는 아름다운 이벤트다. 정상인도 1~2달은 걸려야 배우는 것이 수영인

이제는 내 좌우명이 돼 버렸다. 선지식들의 법문이나 불서를 통해 수없이 되뇌어지던 불교의 고귀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놓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내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됐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 항상 타인을 나와 같이 대하라는 이 가르침은 얼핏보면 무조건 남에게 봉사하고 남을 위해 살라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나. 하지만 이 가르침을 곱씹어 실천하다보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며 사는 것이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일하고 있는 청소년교회연합회에서는 1년에 한번씩 장애인들을 초청해 '자원봉사한마당' 이

데 걷는 것도 힘든 장애아들을 부축하며 수영을 가르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몸은 조금 고되고 힘들더라도 장애아들에게 하루동안 수영장에서 함께 놀아주고 수영도 가르쳐준 청소년들이 행사가 끝날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한결같은 소리는 '보람을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결국 나의 조그만 힘이 타인에게는 큰 의지처로 느껴졌을때 오히려 내 자신은 행복과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봤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자타불이'란 남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내 자신을 위한 길이다. 이 거룩한 가르침이 바로 불교의 근본정신이라는 점 때문에 나는 불교를 무한히 존경하고 사랑한다.

인터넷으로 청년불자 키운다

대불청 · 대불련 을 주요사업 발표



△대불청과 대불련이 인터넷 포교를 골자로 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불청대회에 참가한 청년 불자들.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

대불청과 대불련은 인터넷포교와 지회연계 활성화를 강화한 내용의 올해 사업 계획을 1일 발표했다. 특히 이 두 단체는 지난해에 미비했던 지역 조직 재정비에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을 활용한 계획이다. 우선 대한불교청년회는 3월중

지역 청년 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 충청, 호남, 강원권 등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3~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불교청년 지도자 워크숍도 개최한다. 4월에는 조직 구성원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조직을 세밀하게 재조사한 불청수첩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대불청은 이외에도 △제

대불청 사이버팀 신설 · 홈페이지 재구축

대불련 인터넷방송 강화 온라인 강의

한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정보화 사업은 중앙지구와 지회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가능케해 다양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불청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정보 및 교계소식 등을 인터넷으로 신속히 회원들에게 전달키 위해 사이버 포교팀을 신설한다.

23회 만해백일장(3월1일) △만해대학 개강(3월7일) △제19차 전국불교청년지도자연수교육(4월13~14일) △제21차 전국불교청년대회(7월13~14일) △통일수련회(8월) △8·15 불교청년통일기원대회(8월15일) △청년 불교공동 워크숍(3. 5. 8. 11월)

청소년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설날 제사상 어떻게 차리나

메일매거진 인포메일 13일까지 이벤트 열어

'홍동백서, 어동육서' 붉은 것은 동쪽, 흰 것은 서쪽,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는 설날 제사상을 차리는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신세대 청소년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다. 이에 메일매거진 포털 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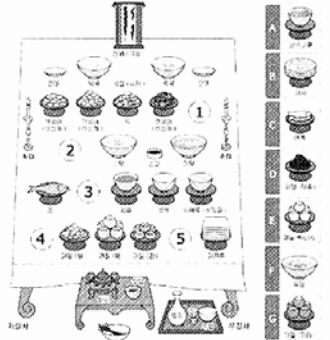
메일(infomail.co.kr)은 12일 설을 맞아 '사이버 차례상 차리기' 이벤트를 열고 있다.

13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차례상에 올라갈 음식을 상차림 순서에 맞게 순서대로 고른 뒤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선물로 준다. 퀴즈를 통해 상차림법을 배우면 생소한 용어와 배열 순서가 머리에 쉽게 속

속 들어올 것 같다. 관심이 있다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 설날 이벤트 코너를 클릭하면 인터넷 상에 준비된 차례상이 그림과 함께 나타나는데, 상 위의 빈자리 다섯 곳에 적당한 재물을 넣으면 된다. 이때 보기로 삼색나물과 어적, 대추, 복숭아, 육방 그리고 기타 과일 등 7가지 재사용품이 주어진다.

퀴즈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차례상 차림법을 모르는 청소년과 네티즌들을 위해 상차리

는 법을 알려주는 별도의 코너도 마련돼 있다. 이 페이지를 클릭하면 상차림법이 소개돼 있다. 상 맨 위쪽 가운데에 올린 지방을 기준으로 첫째 줄에는 떡국과 수저를, 둘째 줄에는 서쪽으로부터 국수, 육적, 어적, 시루떡을 놓는다. 또 셋째 줄에는 고기탕, 생선탕, 두부탕 등 3탕을 놓으며, 넷째 줄에는 포와 삼색나물, 식혜 등을 올린다. 차례상 차리기는 각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나 기본 원칙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



△메일매거진 포털 인포메일은 퀴즈로 푸는 설날 상차림 이벤트를 벌인다.

네티즌 불교포아리 순례 '사이버 법장사'

법회촬영 홈페이지에 불사 등 8개 코너 운영

컴퓨터, 인터넷 하면 젊은 청소년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40~50대 기성세대들에게는 동떨어진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은 사이버 법장사(www.bupjangsang.org)를 만들고 관리·운영하는 법장사 거사회(회장 김주식) 회원들에게 기우에 불과하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법장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장사 거사회는 200여 회원중 3분의 1 이상이 '컴포사'로

불리운다. 이들은 매주 법장사에서 열리는 일요법회에 동참. 주지 퇴휴 스님의 설법을 디지털캠코더로 촬영해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인터넷을 활용한 신행을 펼치고 있다.

사이버 법장사는 불교의 기본 사상이나 관점을 기초로한 법장사 안내, 불사 및 기도, 신행의 길잡이, 신행단체 등 8개의 코너를 구성, 사이버 불교포아리를 드러내고 있다. 또 깔끔한 디자인과 신행상담 등을 통해 일반인이 쉽게 사이버 일주문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더불어 동영상을 비롯한 해외에 이만 간 불자들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신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해 주고 있어 사이버 신행의 모델이 되고 있다.



△법장사 거사회는 사이버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1월 20일 열린 거사회 철야법회.

뿐만 아니라 일요법회 집전, 어린이불교학교 개최, 법장사 창립제 및 초파일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종합무진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매 분기가 개최되는 철야법회는 1, 2부로 나누어 경전 및 집전 교육과 1080배, 참선 등을 병행하고 있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나

바쁜 직장 생활로 접어 나오지 못했던 불자들에게 인기다.

법장사 거사회는 사이버 상에 원불 모시기, 기도문 작성, 사이버 머니로 보시하기 코너를 마련해 사이버 법장사를 명실공히 사이버 템플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a.com

담배를 끊습시다 금연후 시간별 효과

흡연자가 담배를 끊은 후 20분 뒤부터는 혈압, 맥박 등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 금연 8시간이면 습한 것이 없어지고 가래도 덜 끓게 된다. 그리고 금연 기간이 1년이 지나면 호흡곤란 증세가 없어지고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진다. 금연한지 10년이 지나면 폐암 사망률이 담배를 피운적이 없는 비흡연자와 거의 같아진다.

20분 후	혈압과 맥박 정상, 손발 체온 정상
8시간 후	혈중 일산화탄소, 산소 농도가 정상
24시간 후	심장마비의 위험이 감소
48시간 후	신경말단 재생-맛과 냄새 감각이 좋아진다.
2~3주 후	혈액순환 좋아지고 폐활량 30% 이상 증가
1~9개월 후	기침, 코막힘, 피로, 호흡곤란 감소, 폐의 섬모 재생
1년 후	심장병에 걸릴 위험, 비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
5년 후	폐암 사망률 보통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
10년 후	폐암 사망률이 비흡연자와 같아진다.
15년 후	심장병 위험이 비흡연자와 같아진다.

금연 1년 후면 호흡곤란 개선

활인(活人) 천역(天役者) 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가?

명예와 양심을 걸고 역학사(易學史)에 관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또, 오해를 모르는 분을 위해 오해에 능통한 분을 위해 간판을 자신있게 걸고자 하는 분을 위해, 큰 맘 먹고 다시 썼습니다. - 호사 -

세태(世態)는 구제적이고 특수적인 형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육임 신단(神斷)은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시간만 보아 미리 그 사람의 사정과 특별한 비밀과 일의 결과를 물기전에 내가 먼저 말해 주는 책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날치 한 장에 매시마다 적혀 있어 거기에 쓰여진대로 보고 말씀만 하면, 그 사람의 자세와 안색이 달라지게 되어있는 책입니다. 육임은 신통(神通)한 학문으로, 사람들이 좋다는 것은 아니 점군이 어려워 물어보기가 심상인데, 그것을 쉽고 빠르게 활인천역자용으로 발매해 놓은 것입니다. 이틀테면, 낮 사(巳)시(9:32 - 11:32 : 서울지역기준)에 사람이 왔거나 전화했거나 가서 만났을 때, 이 사(巳)시 칸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말씀만하면 다 맞게 되어 있으며,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말할 수 있고 또 적중하는 것입니다.

1. 운세판단 : 이 사람의 운세가 지금 순조로운지 역경스러운지를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2. 수법기부 : 천도 사식 곳의 효과가 있는지, 즉 곳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표 또는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래방목적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물으려 왔는지 적혀 있습니다.
4. 정황판단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5. 초사(初辭) : 문에 들어서자 말자, 전화 오자마자, 가서 만나자마자 때때로 내뿜어 적혀 있으며, 동시에 어떤 귀신이 날뚫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쓰여 있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6. 모방기부 : 무엇을 묻든, 그 묻는 일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즉시 보고 말해줄 수 있도록 써져 있습니다.
7. 이해득실 :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척한 사람인지를 즉시 판단 하여 말해 줄 수 있게끔 써 있습니다.
8. 선악구별 :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9. 이타발동(伊他發動)기부 :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고민사, 자기 스스로 일으킨 일인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10. 원근사 여부 : 묻는 용건이 오래된 일인지, 근래에 일어난 일인지, 자주 반복되는 일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1. 미기사(未起事)기부 : 그 일이 이미 일어났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가 써져 있어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2. 일의 과정 :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일이 시작-중간-결과로 나뉘어져 좋고 나쁜 것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표시대로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13. 귀신침범기부 :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그 시간만 보면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침범하여 발동하고 있는지를 즉시 말할 수 있도록 그 시간 간에 다 써 놨고, 그 귀신을 제압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록에 가해줘 놨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을 밝혀낸 뒤 그 집안에 그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되는데, 이때면 '전사기가 발동했네?'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즉시 먼저 말하면 그 집안에 권정하게 나가 운명한 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됩니다. 이것은 육임에서만 발휘할 수 있는 비법으로 천도나 사식, 또는 곳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크게 활용되고 있음을 밝혀 놓습니다.
14. 산소탈 여부 : 지금, 누구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를 지적할 수 있도록, 탈 부리고 있는 산소를 써놨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물어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화 받자마자, 찾아가 마추치자마자 먼저 내부부터 수 있도록 써 놨습니다. 이 산소탈에 대한 제압법도 부록에 밝혀 놓았습니다. 이틀테면 조부, 조모, 부친, 모친, 형제지매, 숙부, 외조부, 외조모 장인, 남편, 아내, 누나며 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15. 사승여부 : 빌미부정 역시 온 사람이나 전화한 사람의 떠난 알면, 상대가 현재 무슨 부정이 들었는지, 빌미부정은 떠돌을 모두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단번에 기분을 제압당해 버립니다.
16. 가삼갈음(家相吉凶)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흉상인지, 길상인지, 이사를 하면 좋을 것인지, 빨리 그 집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사람인지 여부가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부록 해당 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추치는 그 순간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7. 이사길방 : 이사를 하려할 때, 어디로 이사를, 어느 날에 시키면, 언제 어느 해, 또는 어느 월에 가서 좋은 일이 있게 되는지를 아예 써 놨습니다.
18. 소송승패 : 국가와 개인간의 소송, 집단 수상 수하간의 소송, 타인간의 원고·피고의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분명히 표시해 놨습니다.
19. 음기판단 : 묻는 일이 어느 월에 될지, 어느 날에 될지를 정확히 써놨습니다. 또 부록에 그 근거를 밝혀 놓았으므로 이를 보시면 참으로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20. 가해(加害) : 어디 방위에 사는 남·녀 누가 피해를 가해 올 사람인지를 밝혀 놨습니다.
21. 길흉성부당정량통 : 뒷면에, 묻는 용건을 즉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묻는 내용 22가지별로 그 답을 써놨습니다. 모방·공명·구제·구직·시험·혼사·입신·가정·이사·소송·질병·매매·출생·도난·실인·대인·상면·채용·투자·승부·가계·경각·표지·기후
22. 연명상신법 : 뒷면에, 그 사람 떠난 알면 그 사람의 운세를 밝힐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귀인인지, 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빈천자인지, 병들 사람인지, 관재가 있을 사람인지, 동등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한글판 「육임1년 신수비결」출시

1년 동안 늘어난 그날과 온 시간, 전화와 온 시간, 가서 만난 시간, 또는 그 사람의 떠난 알면 출생 년월일시가 필요없이 1년 12월의 길흉성부 내용이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쉽고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신수비는 영성체 두드러지고 보는 책이며 정확합니다. 이 책을 능가하는 신수 책은 없습니다. 어떤 오형술도 육임의 정확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육임은 신사(神示)로서, 스님이 말씀하면 법력(法力)이 되고, 신령재자가 말씀하면 귀신(鬼神)이 되고, 오형가가 말씀하면 도력(道力)이 됩니다. 같이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날치 한 장 칸마다에 시간별로 다 쓰여져 있으므로, 바인더로 된 본책에서 그 날치 한 장만 떼서 책상위에 놓고 하루 동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몇 명이든, 전화가 오든, 가서 만나든 서로 보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봐도 모두 다르게 구별할 수 있도록 다 적혀 있습니다.

● 전 13권 · 바인더금박 · 크기 : 540×380×30 · 지질 : 스노우무량 ● 주문전화 : (02) 993-8680
● 일 금 처 : 한빛은행 813-041593-13-101 김영란 · 도서출판 북은 ※ 각종 카드로 찾기 분할 구입도 가능합니다.

매월별 12권 문권 부록 · 비디오테이프 포함
₩ 1,300,000원 (일백삼십만원)